

【특집】

법학적성시험(LEET)과 철학 교과 내의 비판적 사고 교육*

김희정

【주제분류】 비판적 사고, 논리학

【주요어】 비판적 사고, 법학적성시험(LEET), 비판적 사고 교육, 추론, 논증

【요약문】 이 글에서 필자는 철학이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에 가장 도움이 되는 교과라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여부를 결정하는데 학부 성적, 공인 영어시험 점수, 법학적성시험(LEET) 점수, 사회봉사 점수 등을 고려하지만, 법학적성시험이 결정적이다. 이 시험을 통해 법조인 지망생에게서 측정하려고 하는 능력은 바로 비판적 사고 능력이다. 이 사고 능력은 다른 학과의 교과목보다도 철학과의 교과목에서 가장 잘 훈련할 수 있다.

이 글의 전반부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자에게 필요한 소양과 능력이 다름 아니라 비판적 사고의 소양과 능력이라는 점을 필자는 밝힐 것이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비판적 사고를 교육하는 여러 가지 방식을 소개하고 철학과의 모든 교과들은 그 교육의 일환임을 보일 것이다. 또한 철학과의 과목들이 비판적인 사고 교육의 방식들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보일 것이다.

* 이 논문은 2008년 철학사상연구소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보고서의 일부임.

I. 법학적성시험(LEET)이 측정하는 능력은 무엇인가?

1. 법학전문대학원이 요구하는 능력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시대적인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국내에서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사회를 반영하는 다양한 법적인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법률시장의 개방을 앞두고 법률 서비스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이런 국내외적인 변화에 따라 이제 우리 사회는 법조인들에게 이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미래의 법조인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다음의 글에서 엿볼 수 있다.

21세기 법치 국가를 뒷받침할 장래의 법조인은 국민의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이해 및 자유, 민주, 평등, 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 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보다 전문적,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개방되어 가는 법률 시장에 대처하며 국제적 사법 체계에 대응할 수 있는 세계적인 경쟁력과 다양성을 지녀야 한다.¹⁾

법조인에게 요구되는 능력을 명시한 위의 글에서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이념을 다음의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자유, 민주, 평등, 정의의 가치를 신봉하는 민주 사회 시민으로서 건전한 가치관과 올바른 판단력, 그리고 풍부한 교양을 가진 법조인을 기르고자 한다. 둘째, 국내의 다양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1) 한상희,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방향과 교육과정』, 『법과 사회』, 법과 사회 이론학회,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7. 9), 2005, pp.9-10에서 재인용.

뿐만 아니라 개방되어 가는 법률 시장에 세계적인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전문 법조인을 기르고자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뿐 아니라 풍부한 교양을 갖춘 인물을 양성하고자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에 대한 전문지식을 교육할 것이다. 그렇지만 민주 사회의 시민이 갖추어야 할 가치관과 판단력의 모태가 될 풍부한 교양은 법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가기 전부터 쌓아야 할 것이다.

기존의 사법시험은 법조인이 갖추어야 할 기본을 일정 정도 준비하게 하는 측면이 있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는 기존의 사법시험으로 급변하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풍부한 교양과 소양을 지닌 전문가를 선발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또한 이제는 현대 사회에서 요구하는 법률 전문가를 단순히 특정의 시험에 의해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교육에 의해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에 직면하게 된다. 실제로 기존의 사법시험 합격자는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오로지 사법시험 준비에만 매달렸고, 그 결과 법률과 밀접하게 관련된 다른 분야에 대한 교양이나 기본적인 소양을 쌓을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런 점은 그동안 계속해서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사항이었다. 그래서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기본 소양과 능력을 갖춘 다양한 학부 출신의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법조인의 업무 범위는 단순히 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과학, 기술, 문화, 예술 등 모두 분야를 걸친 매우 넓은 영역이다. 이런 넓은 영역의 다양한 문제들에 접근하기 위해서 당연히 풍부한 교양과 기본적인 소양이 요구된다.

그렇다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받기 위해 갖추고 있어야 소양과 능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즉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에 위해 요구되는 기본적인 소양과 능력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기본적인 법 지식을 얼마나 습득하고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을 실무에 적용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적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 등이다. 세계화, 전문화 시대에 걸 맞는 예비 법조인을 선발에서 시험하고자 하는 능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²⁾

첫째, 풍부한 교양을 가지고 인간과 사회에 대해 폭넓게 인식하고, 사회 현상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둘째, 민사·형사 등 전통적 분야 이외에 조세·환경·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서비스를 충족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셋째, 외국어 능력 등 법률 서비스 개방에 대비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넷째, 급변하는 세계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 능력과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전문적인 법적 사고 능력이 있어야 한다.

2. 법학적성시험이 측정하는 능력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가?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서류전형과 면접, 구술시험으로 학생들을 선발한다. 서류전형에서는 대학 학부 성적, 공인 영어시험 점수, 법학적성시험 점수, 사회봉사 점수 등을 고려한다. 대학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법학적성시험 점수의 비중이 적어도 20%이상이다. 다른 점수들을 어떻게 잘 받느냐 하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법학적성시험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은가에 관심을 갖게 된다. 한 마디로 말해서 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LEET)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수학 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소양과 잠재적인 적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시험이다.”³⁾ 이 시험에서 측정하는 능력은 “일반 지능 검사보다는 폭이 좁고, 법학이라는 특수 분야보다는 넓은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직적성평가(PSAT)와 비교하자면, PSAT는 일반 적성 시험에 더 가까운 것이다. 그 시험은 의

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6. 9, p.11.

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7. 12, p.1.

4)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7. 9, p.11.

무직 뿐 아니라 일반 행정직, 기술직, 그리고 공무 승진시험 등 장기적으로는 모든 공무원이나 공무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법학적성시험에서 측정하는 능력은 독해 표현력,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그리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기본 지식이다.)

<표 1> LEET에서 측정하는 능력

독해 표현력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여, 상황에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 필요, 의사소통 능력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주어진 상황에서 사고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기본 지식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

이때 ‘기본 지식’이란 법에 관한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풍부한 교양을 의미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2007년 9월 공청회에서 제시한 이런 내용을 2007년 12월 예비시험 설명 자료를 통해 보다 더 분명하게 제시한다.

그 자료에 의하면 법학적성시험은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의 3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각 영역에서 평가되는 내용과 측정되는 인지활동 능력 및 주요 출제 유의 사항을 요약하여 다음과 같은 도표로 제시할 수 있다.)

<표 2> LEET 시험영역과 그 평가틀

시험 영역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내용	㉠ (국어, 인문, 사회, 과학·기술, 문학·예술)	㉠+수학, 논리학/ ㉠의 논변+실천적 논변	㉠의 학문적 또는 학제적 텍스트
측정하는 인지활동 유형	어휘, 분석, 추론, 비판, 창의	언어추리, 수리추리, 논리 게임/ 분석 및 재구성, 비판 및 반론, 판단 및 평가	분석, 구성(논증, 창의, 표현)
주요 출제 원칙	특정 분야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야 하는 문제는 제외함.	속도 검사가 아니라 역량 검사가 되도록 출제함.	특정 전공의 배경지식이 있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은 제외함.

5)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7. 9, p.15 참조.
 6)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7. 9, p.17.
 7)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7. 12, pp.1-8 참조.

우선 언어이해 영역을 보자. 이 영역에서 다루는 지문은 국어, 인문, 사회, 과학·기술, 문학·예술의 다양한 글로서 특정 학문 분야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 다양한 학문 분야에 걸친 폭넓은 독서를 통해 습득되는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측정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다양한 학문 분야에 걸쳐 어휘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능력, 글을 분석하는 능력, 추론하는 능력, 글을 평가하는 비판 능력,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한다.

여기서 측정되는 각각의 인지활동의 유형이 어떤 것인지 좀 더 상세히 알아보자.

<표 3> 언어이해 영역에서 측정하는 인지 활동 유형⁸⁾

어휘	어휘의 의미와 용법을 이해하고 바르게 사용하며, 문장 및 문단 수준에서 어법(규범)에 맞는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
분석	어휘(단어), 문장, 텍스트 수준에서 의미를 이해하고, 각각의 수준에서 대상을 그 구성 성분으로 분해하고, 그 부분간의 관계와 그것이 조직되어 있는 방식을 발견해내는 능력
추론	주어진 자료들로부터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보나 결론을 도출을 도출해 내거나, 태도, 관점, 의도 등을 추론하는 능력
비판	텍스트의 내용과 형식, 사고의 과정, 반영된 현실에 대하여 내적·외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그 정당성이나 적절성 또는 가치 및 우열에 대하여 평가하는 능력
창의	분석, 추론, 비판을 바탕으로 하여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

이 영역에서 측정하는 인지활동 유형을 잘 살펴보면 특정분야의 세부적인 내용을 습득했느냐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분야의 글을 통한 풍부한 교양을 가지고 있는지와 텍스트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종합하며, 나아가 비판할 수 있는가 하는 등의 능력을 시험한다.

다음으로 추리논증 영역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자. 이 영역에서 측정하는 인지활동 유형은 다음과 같다.

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7. 12, p.3.

<표 4> 추리논증 영역에서 측정하는 인지 활동 유형⁹⁾

추리	언어추리	일상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추리 (명제논리, 술어·관계논리, 함축된 정보, 귀납, 유비 및 가설추리)
	수리추리	수리적인 자료로부터 수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산이나 추리 (수리 연산 및 대수, 도형 및 기하, 게임이론 및 이산수학, 표, 그래프, 다이어그램, 배열하기/속성찾기)
	논리게임	연역적인 추리 능력을 검사하는 전형적인 논리 퍼즐 ¹⁰⁾ (연결하기/뭉기, 진실 또는 거짓, 수학적 퍼즐)
논증	분석 및 재구성	논증의 주장과 제시된 근거를 파악하기, 논증이 기반하고 있는 원리나 가정 등을 파악하기, 논증에서 생략된 전제 찾기, 논증의 구조를 분석하거나 논증 유형 비교하기 등.
	비판 및 반론	논쟁의 쟁점을 파악하거나 공통의 가정 내지 전제를 파악하기, 주어진 논증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기, 비판이나 반론에 대하여 논증을 수정 보완하거나 재구성할 방안을 찾기, 갈등이나 역설의 논리적 기반을 파악하거나 그 해소 방안 찾기 등.
	판단 및 평가	논증이 범하고 있는 오류를 파악하기, 귀납 논증에서 결론의 정당성을 강화하거나 약화하는 사례 내지 조건을 파악하기, 논증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평가의 원리 내지 가정 파악하기 등

추리논증 영역은 다시 추리영역과 논증영역으로 나누어진다. 추리 영역에서는 일상 언어로 된 추리를 다룬다. 그러나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명제논리, 술어·관계논리 등의 연역추리 능력이 필요하다. 일상 언어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추리는 귀납추리이다. 유비 및 가설추리 등의 귀납추리 능력이 필요하다. 일상적인 추리는 함축된 정보를 찾는 것도 포함된다. 논증 영역은 크게 이론적 논변과 실천적 논변으로 나누어진다. 이론적 논변은 인문학, 사회과학, 과학기술 분야에서 제시하는 논변들을 말한다. 실천적 논변은 일상적인 논변, 도덕적인 논변, 정책 결정이나 의사 결정, 법적 논변 등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논술 영역에서 측정하는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자.

9)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7. 12, p.6.
 1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7. 12, p.5. 괄호 안의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6. 9, p.57 참조.

〈표 5〉 논술에서 측정하는 인지 활동 유형¹¹⁾

분석 (이해를 바탕으로 사고하는 능력)	논제 분석	주어진 논제의 의도와 그것이 요구하는 과제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제시문 분석	주어진 제시문을 이해하고 그 내용과 형식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
구성 (사고를 구성하여 글로 완성하는 능력)	논증	논리적으로 사고를 구성하는 능력
	창의	새롭고 적절한 사고를 구성하는 능력
	표현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여 글로 표현하는 능력

논술 영역은 분석과 구성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분석 영역에서는 제시문을 읽고 거기에 어떤 쟁점이 논의되는가에 대한 논제를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또한 제시문의 상세한 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 구성 영역에서는 실제 논술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여기서는 우선 자신의 주장을 좋은 논증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의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신의 사고가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3. 비판적 사고

법학적성시험의 세 가지 영역에서 측정하는 능력이 어떤 것인지 간단히 말하면 비판적 사고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일상적으로 ‘비판적 사고’라고 하면 어떤 사안에 대해 잘못된 점, 혹은 결점을 지적하는 부정적인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서 비판적 사고는 맹목적인 사고, 수동적인 사고와 대비되는 반성적이고 능동적인 사고를 말한다. 즉 비판적인 사고는 어떤 문제(글)에 대해 이모저모 따져서 그 내용을 깊이 있고 보다 폭넓게 이해하며 공정한 평가하는 사고를 말한다. 비판적 사고는 여러 가지로 다양

1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7.12), p.8.

하게 정의될 수 있겠지만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 다음의 정의를 제시할 수 있다.

우리는 비판적 사고가 해석, 분석, 평가, 추론 그리고 설명을 산출하는 의도적인 자기 규제적 판단이라고 이해한다. 그리고 해석, 분석, 평가, 추론 및 설명을 할 때는 그 판단이 기초하고 있는 근거, 개념, 방법, 기준, 또는 맥락 등의 측면들을 고려한다. 비판적 사고는 탐구의 도구로서 필요 불가결하다. 그래서 비판적 사고는 교육에서는 (무지의 족쇄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획득케 해주는) 해방적 힘이며 개인적, 시민적 삶에서는 위력을 지닌 자산이다. 비판적 사고는 ‘훌륭한 생각’과는 동의어가 아닌, 널리 퍼져있는 자기 교정적인 인간 현상이다. 이상적인 비판적 사고자는 습관적으로 이유를 꼬치꼬치 묻고, 잘 알고자 하고, 근거를 중요시하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유연성이 있으며, 평가에 있어서 공정하고, 개인적 편견을 다룸에 있어서 성실하고,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신중하고, 기꺼이 재고(再考)하고, 현안 문제들에 대하여 분명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체계적이고, 유관한 정보를 부지런히 찾고, 기준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이고, 집중하여 탐구하고, 주제와 탐구의 상황이 허락하는 한 되도록 명료한 결과를 끈기 있게 추구한다.¹²⁾

위의 정의에서 비판적 사고는 ‘해석, 분석, 평가, 추론, 그리고 설명을 산출하는 의도적인 자기 규제적 판단’이라고 하고 있다. 이것만으로 우선 비판적 사고가 위의 법학적성시험의 언어이해 영역에서 측정하는 적어도 3가지 능력(분석, 추론, 비판)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판적 사고를 구성하는 요소를 통해서도 비판적 사고가 어떤 것인지 짐작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법학적성시험에서 측정하는 소양과 능력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우리가 비판적으로 생각할 때 또는

12) 델피보고서 p.3. 김광수(2002), p.10에서 재인용. 미국 철학회(American Philosophical Association)가 비판적 사고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철학자, 교육학자, 심리학자, 과학자 등 전문가 46명을 비판적 사고에 대해 논의하도록 위촉하였다. 그들은 1988년부터 1990년까지 2년여에 걸쳐 논의한 결과 합의된 내용을 델피보고서라는 이름으로 발표하였다.

글을 읽거나 쓸 때 따져보아야 하는 측면을 학자들은 10가지 정도로 분류한다.¹³⁾ 이 요소들은 또한 우리가 글을 읽을 때나 쓸 때에 따져보아야 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글을 읽을 때 비판적으로 읽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이 10가지 요소를 간단하게 설명해보기로 하자.

비판적으로 글을 읽는다는 것은 글쓴이가 주장하는 내용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보다 깊이 있고 다각도로 이해하고 평가하는 능동적이고 반성적인 작업이다. 다시 말해 비판적으로 글을 읽는다는 것은 이모저모 따져본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따져야 하는가에 대해 바로 비판적 사고의 10가지 요소가 알려준다.

아래의 내용은 비판적 사고를 구성하는 10가지 요소들과 평가의 기준들을 실제 글 읽기에 적용하는 법을 간단하게 설명한 것이다.¹⁴⁾

13) 폴은 비판적 사고의 구성요소를 8가지로, 김영정 교수는 9가지로, 노시치는 10가지고 나누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자료에 잘 나타나 있다. Richard Paul & Linda Elder(2001); 김영정, 서원주(2004); Gerald M. Nosich(2001). 비판적 사고의 구성요소들과 평가 기준들을 글 읽기에 적용시키는 내용에 대해서는 박은진, 김희정, 『비판적 사고를 위한 논리』, 아카넷, 2004, pp.24-32 참조, 혹은 박은진, 김희정, 『비판적 사고』, 아카넷, 2008, pp.23-38 참조.

14) 비판적 사고의 평가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 학자들 간의 약간의 불일치가 있다. 노시치는 8가지(분명함, 정확성, 명료성, 적절성, 중요성, 깊이, 폭넓음, 충분성)를 폴은 9가지(분명함, 정확성, 명료성, 적절성, 중요성, 깊이, 폭넓음, 논리성, 공정성)를, 김영정 교수는 폴과 약간 다르게 9가지(분명함, 정확성, 명료성, 적절성, 중요성, 논리성, 폭넓음, 충분함, 깊이)를 제시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자료에 잘 나타나 있다. Richard Paul & Linda Elder(2001); 김영정, 서원주(2004); Gerald M. Nosich(2001).

<표 6> 글읽기에 적용된 비판적 사고의 구성요소와 평가기준

목적	글쓴이가 무엇을 위해 그 글을 썼는지 생각해본다. 나아가 그 목적이 적절한지 평가해본다.
현안문제	글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있는지 살펴본다. 논증적인 글이라면 통상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한다. 나아가 글쓴이가 해결해야 할 현안문제로 삼고 있는 것이 중요한지 따져본다.
개념	글에서 유의해서 따져보아야 단어의 의미가 바로 개념이다. 글의 핵심단어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나아가 글쓴이가 그 단어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가정(전제)	글쓴이가 어떤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근거가 가정 혹은 전제이다. 그 근거는 명시적으로 표현될 때도 있고, 암묵적으로 가정할 때도 있다. 명시적 전제와 암시적 전제를 찾아본다. 그리고 그렇게 가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본다.
정보	글쓴이가 사실로 받아들이고 글에서 사용하고 있는 내용이다. 글쓴이가 사용하고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찾아본다. 나아가 그 정보가 정확한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정보인지 확인한다.
추론을 통해 도달한 결론	글쓴이는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어떤 사고를 근거로 다른 사고를 도출한다. 그런 사고과정을 표현한 문장들이 어떤 것인지 찾아본다. 나아가 그 추론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관점	글쓴이는 문제를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글쓴이가 어떤 시각과 입장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는지 생각해본다. 그리고 그 시각이 폭넓은지 아니면 한쪽으로 치우쳤는지 따져본다.
결론이 함축하는 귀결	글에는 명시적으로 드러난 결론도 있지만 그 결론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암시적인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주장을 결론으로부터 이끌어 낼 수 있는지 생각해본다.
맥락	글은 항상 어떤 맥락에서 쓴 것이다. 글쓴이가 글을 쓴 상황이나 배경 등을 생각해본다.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이 글을 썼는지도 생각해본다.
대안	글쓴이의 주장이나 글을 전개하는 방식 등 모든 측면에 대해 ‘나라면 어떻게 다르게 할까?’라고 구체적으로 생각해본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에 대해 근거를 제시해본다.

이제 법학적성시험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인지능력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비판적 사고능력이라는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이기 위해 법학적성시험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인지능력이 비판적 사고의 10가지 구성요소 각각과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여기서 오른 쪽에 제시하는 비판적 사고의 구성요소는 왼쪽의 Leet 측정 능력에 대응하는 가장 근접하는 대표적인 것이다.

〈표 7〉 LEET 측정 능력과 비판적 사고의 10가지 구성요소

LEET 측정 능력		비판적 사고의 10가지 구성요소	
언어이해	어휘	개념	
	분석	목적/ 현안문제/ 개념/ 정보	
	추론	가정(전제)/ 추론을 통해 도달한 결론/ 관점/ 결론이 함축하는 귀결/ 관점/ 맥락	
	비판	가정(전제)/ 추론을 통해 도달한 결론/ 관점/ 결론이 함축하는 귀결/ 맥락/ 대안	
	창의	가정(전제)/ 추론을 통해 도달한 결론/ 관점/ 결론이 함축하는 귀결/ 맥락/ 대안	
추리 논증	추리	언어추리	가정(전제)/ 추론을 통해 도달한 결론/ 관점/ 결론이 함축하는 귀결/ 맥락/ 대안
		수리추리	x
		논리게임	x
	논증	분석 및 재구성	가정(전제)/ 추론을 통해 도달한 결론/ 관점/ 결론이 함축하는 귀결/ 맥락/ 대안
		비판 및 반론	가정(전제)/ 추론을 통해 도달한 결론/ 관점/ 결론이 함축하는 귀결/ 맥락/ 대안
판단 및 평가	가정(전제)/ 추론을 통해 도달한 결론/ 관점/ 결론이 함축하는 귀결/ 맥락/ 대안		
논술	분석	논제 분석	가정(전제)/ 추론을 통해 도달한 결론/ 관점/ 결론이 함축하는 귀결/ 맥락/ 대안
		제시문 분석	목적/ 현안문제/ 개념/ 가정(전제)/ 정보/ 추론을 통해 도달한 결론/ 관점/ 결론이 함축하는 귀결/ 맥락/ 대안
	구성	논증	가정(전제)/ 추론을 통해 도달한 결론/ 관점/ 결론이 함축하는 귀결/ 맥락/ 대안
		창의	가정(전제)/ 추론을 통해 도달한 결론/ 관점/ 결론이 함축하는 귀결/ 맥락/ 대안
		표현	x

이제 위의 도표를 설명해보자. 《언어이해》 영역에서 측정되는 어휘는 비판적 사고의 구성요소 중 개념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LEET에서 측정하는 어휘력이 개념에 대한 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것을 의미한다. 비판적 사고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개념은 단어가 가진 의미

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적절한 어휘력을 구사하는 데에 철학교과가 다른 교과보다 더 유리하지는 않다. 그러나 고등학교까지 국어 교육을 제대로 받았고 그 내용을 잘 습득하고 있다면, 그리고 대학에서 어떤 전공을 하던 그 분야의 글을 이해할 수 있는 어휘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 부분의 능력을 시험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분석력은 ‘어휘, 문장, 텍스트 수준에서 의미를 이해하며 각각의 수준에서 대상을 그 구성성분으로 분해하고’, 그 부분간의 관계를 그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방식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글을 읽고 그 글의 목적, 현안문제, 정보 등을 파악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추론력과 비판력은 모두 추론 분석과 구성 및 평가의 능력이다. 그것은 비판적 사고의 구성 요소들 중 무엇보다도 가정(전제), 추론을 통해 도달한 결론, 결론이 함축하는 귀결, 관점, 맥락과 관련이 있다.

마지막으로 창의력은 비판적 사고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에 대응한다. 흔히 비판적 사고가 창의적 사고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비판적 사고의 내용을 오해한 데서 나오는 잘못된 생각이다. 창의적 사고는 그저 새롭기만 한 사고가 아니라, 새롭고 독창적이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창의적인 사고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도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창의력은 비판적인 사고의 일환으로 간주된다.

논증과 아이디어를 잘 평가하기 위해서는 종종 매우 상상력이 풍부하고, 다른 가능성들, 대안적인 고려들, 그리고 다른 선택지들, 등등을 창의적으로 찾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 어떤 사안에 대해 훌륭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에서 잘못된 점을 찾아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당신은 당신이 고안해 낼 수 있는 최선의 논증에 기초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종종 제시된 것 이외의 다른 적절한 고려사항들을 생각하여야 하며, 다른 관점에서 논의사항들을 바라보아야 하며, 대안적인 시나리오를 상상해야 하며, 다른 적절한 정보들을 찾아내야 하는 것 등등이 필요하다. 즉 매우 창의적이 될 필요가 있다.¹⁵⁾

15) 김기현, 김영정, 『비판적 사고의 역사적 고찰과 국내외 현황』,

다음으로 《추리논증》 영역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추리> 부분에서 언어추리는 일상어를 사용하여 표현되는 추리를 의미한다. 이것을 잘 다루기 위해서는 연역 추리와 귀납추리에 대한 학습을 바탕으로, 일상 언어로 된 추리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 부분은 비판적 사고의 구성요소들 중 주로 추론에 관련된 부분이다. 그러나 수리추리와 논리게임은 비판적 사고의 구성요소와 직접 관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에 <논증> 부분은 비판적 사고의 ‘가정(전제), 추론을 통해 도달한 결론, 결론이 함축하는 귀결, 맥락, 대안’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논술》 영역을 보자. 이것은 다시 <분석>과 <구성>으로 나누어진다. 법학적성시험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논술은 우선 주어진 제시문을 읽고 요약문 쓰기, 논평문 쓰기, 논술문 쓰기의 세 가지이다. 이 영역에서는 우선 제시문을 읽고 주어진 논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논제 분석에는 주로 비판적 사고의 추론에 관련된 세 가지 요소와 맥락이 관련된다. 그리고 제시문 전체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제시문 분석에는 그것 이외에 목적, 현안문제, 개념, 정보, 관점, 맥락 등의 요소가 관련된다. <구성> 부분에서 논증은 자신의 논증을 구성하는 능력, 그것도 창의적으로 구성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그것은 추론에 관계된 세 가지 요소와 맥락, 대안이 관련된다.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것은 비판적 사고만의 문제는 아니다.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구성할 수 있는 단계와 그것을 글로 표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국어 교육을 받아온 사람이라면 정리된 사고를 글로 옮기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철학사상 별책 제 4권: 비판적 사고의 이론적 토대와 그 활용에 대한 철학적 연구』,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2004, p.25.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의 관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김영경, 서원주, 『비판적 사고, 논리적 사고, 창의적 사고』, 『철학사상 별책 제 4권: 비판적 사고의 이론적 토대와 그 활용에 대한 철학적 연구』,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2004, pp.33-76 참조.

II. 철학이 왜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의 지름길인가?

1. 비판적 사고의 교육방식

이제 철학이라는 학과가 왜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는데 가장 효과적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철학은 바로 비판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다. 앞서 말했듯이 비판적 사고는 어떤 주장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근거가 무엇인지 따지는 사고라고 했다. 철학은 어떤 한 철학자의 사상을 소개하고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식으로 학습하는 학문이 아니다. 어떤 철학자의 주장을 항상 그 근거와 더불어 탐구하는 학문이다. 즉 항상 그 근거가 그 주장을 제대로 지지하는지를 따진다. 그리고 다른 주장을 하는 철학자들의 입장을 함께 살펴보고, 그 장단점이 무엇인지 따져본다. 혹은 철학자의 주장 뿐 아니라 어떤 문제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세우고 그 주장에 대한 근거를 찾는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한다. 즉 자신의 주장을 어떻게 정당하게 만들 수 있을지를 심각하게 고민한다. 예를 들면 응용 윤리학 시간에 “안락사를 허용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할 뿐 아니라 그것에 대한 제대로 된 근거를 댈 수 있도록 연습한다. 이런 점에서 다른 어떤 교과보다 철학은 반성적이다. 철학은 자기 스스로가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할 만큼 반성적이고 비판적이다. 물론 다른 학과들이 무비판적이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철학은 다른 어떤 교과보다 의식적으로 비판적이다. 철학은 자기 자신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철저히 반성적이고 비판적인 유일한 교과이다. 철학이라는 교과 자체가 비판적이라는 것 이외에, 비판적 사고를 학습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면 철학이 비판적 사고를 학습하는 최선의 학문이라는 것은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고비어(T. Govier)는 비판적 사고를 학습하는 여섯 가지 방식을 소개한 바 있다. 그 여섯 가지는 다음과 같다.¹⁶⁾

- 1) 형식 논리학으로 접근하는 방식
- 2) 비형식적 오류로 접근하는 방식
- 3) 논증 유형으로 접근하는 방식
- 4) 논증을 포함한 주장, 설명 등으로 접근하는 방식
- 5) 개별 교과 내에서 접근하는 방식
- 6) ‘강한’ 비판적 사고의 접근 방식

이 방식들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자. 1)은 일상 언어로 된 논증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연역 논리학의 체계를 학습하는 것이다. 형식 논리학은 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논증 가운데에서도 연역 논증의 구조에 대한 것이다. 형식 논리학의 논의는 아주 짜임새 있고 중요하기는 하지만, 만약 그것만 가르치게 되면 비판적 사고 능력 중 일부를 기르게 한다. 그러나 형식 논리학에 대한 훈련이 있다면, 일상 언어로 표현된 논증을 다루는데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형식논리학에 대한 훈련은 명료하게 사고하는 습관을 길러준다.

2)는 오류를 통해 논증을 학습하는 방식이다. 비형식적 오류는 내용상 문제 있는 논증, 즉 잘못된 논증을 말한다. 학생들은 잘못된 논증들의 유형에 대한 분류를 익힌다. 그런 다음 어떤 논증이 결합이 있을 때, 그것이 어떤 점에서 잘못을 저지르는가를 분석하고 평가하게 된다. 이런 교육 방법의 목적은 잘못된 논증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 쉽지만, 좋은 논증에 대해 적극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받기도 한다.

3)은 논증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주로 학습하는 방식이다. 글에서 논증을 찾아내고 그것을 재구성하는 연습을 한다.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논증의 전제가 결론을 제대로 지지하는지 평가한다. 논증의

16) Trudy Govier, “Ways of Teaching Reasoning Directly,” The First British Conference on Informal Logic and Critical Thinking, 1988.

형식적 측면과 비형식적 측면 모두를 다룬다. 따라서 이 방식은 형식 논리학의 내용 일부와 오류에 의한 학습방법을 포함할 수 있다.

4)는 논증뿐만 아니라 주장, 가설, 설명, 제안 등도 논증과 마찬가지로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3)에 논증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진 글들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도록 하는 부분을 포함한다.

5)는 다양한 종류의 구체적인 학과의 맥락 내에서 비판적 사고를 훈련하는 것이다. 어떤 구체적인 학문의 맥락에서 떼어내서 비판적 사고를 익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물리학, 역사, 생물학, 심리학, 의학, 철학 등 개별 학문 내에서 비판적으로 사고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각 교과목의 내용을 배우는 과정에서 무비판적으로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학과 교육에서는 교과 내용을 가르치면서 은연중에 비판적 사고를 기르도록 하겠지만, 이 교육 방식은 그 이상을 의미한다. 즉 비판적 사고 기량을 의식적으로 가르침과 동시에 교과 내용을 그것에 접목하는 것이다.

6)은 비판적 사고의 중요한 이론가인 폴(Richard Paul)이 주장하는 방식으로서 비판적 사고를 원자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맥락과 결부시켜 총체적으로 훈련시키는 것을 말한다. 폴은 1)~3)의 접근 방식은 흔히 논증이 실제로 사용되는 배경이나 맥락을 무시한 채 제한된 범위에서 다룬다고 비판한다. ‘강한’ 비판적 사고는 학생들이 논증을 분석하고 평가할 때 자신의 세계관이나 자신이 기반을 두고 있는 사고틀까지 반성하도록 한다. 그래서 그는 맥락에서 분리하여 단순히 논증만을 원자적으로 다루는 것은 ‘약한’ 의미의 비판적 사고를 함양할 뿐이라고 지적한다. 대신에 폴은 우리가 기반으로 하고 있는 개념틀이나 세계관을 확인하고 반성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강한’ 비판적 사고를 강조한다.

2. 비판적 사고를 학습하는 방식과 철학교과

철학교과는 비판적 사고를 학습하는 여섯 가지 방식을 실제로 적용하고 있다. 1)은 일반 논리학이나 형식논리학 강좌에서 적용하고 있다. 2)는 비판적 사고 과목이나 일반 논리학 과목, 그리고 일부 철학과의 강좌에서 적용하고 있다. 3)과 4)는 비판적 사고 과목, 일반 논리학 과목, 그리고 철학과의 일반 과목에서 적용하고 있다. 철학과의 일반 과목들은 5)를 적용하고 있다. 철학과의 일반 강좌들은 일정 내용을 가르침과 동시에 의식적으로 비판적 사고의 기량을 가르친다. 그리고 철학과의 일반 과목과 특히 윤리학은 6)을 적용하고 있다. 윤리학은 우리가 건전한 가치관을 갖도록 우리의 삶의 실천에 맥락을 두고 비판적인 판단을 훈련하도록 하는 과목이다.

이런 관계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표로 나타낼 수 있다.

〈표 8〉 비판적 사고의 학습 방식과 해당 철학 강좌

비판적 사고의 학습 방식	해당 철학 강좌
1) 형식 논리학으로 접근하는 방식	일반 논리학/ 형식 논리학
2) 비형식적 오류로 접근하는 방식	비판적 사고/ 일반 논리학
3) 논증 유형으로 접근하는 방식	비판적 사고/ 일반 논리학/ 철학과의 일반 과목
4) 논증을 포함한 주장, 설명 등으로 접근하는 방식	비판적 사고/ 일반 논리학/ 철학과의 일반 과목
5) 개별 교과 내에서 접근하는 방식	철학과의 일반 과목
6) ‘강한’ 비판적 사고의 접근 방식	철학과의 일반 과목 특히 윤리학

법학적성시험에는 논술도 포함되어 있다. 논술에 대해서 대학의 어떤 학과에서 가장 잘 다룰 것인가? 물론 철학교과만이 논술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철학이 가르칠 수 있는 논증이나 비판적 사고력을 떠나서는 훌륭한 논술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김광수 교수는 다음과 같이 잘 지적하고 있다.

논술 교육을 어느 특정 전공자가 전담하거나 독점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전공자가 논술 교육을 담당할지라도, 세계관, 가치관, 비판적 사고와 같은 철학의 분야를 중시하지 않을 경우 실패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국어나 문학 전공자가 논술 교육의 책임자라는 생각은 무지의 소치라기보다는 무비판적 사고의 전형적인 예이다. 초등학교 6학년과 중고등학교 6년, 무려 12년 동안 어떤 다른 교과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국어, 문학, 읽기와 쓰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별도로 논술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국어 교육 담당자들은 지금이라도 책임을 통감하고, 철학과 비판적 사고를 별도로 연구한 후에 논술 교육에 임해야 할 것이다.¹⁷⁾

3. 다른 교과를 전공하면서 논리학 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언어이해 영역, 추리논증 영역, 논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측정하는 능력은 주로 비판적 사고 능력이다. 비판적 사고를 학습하는 모든 방법은 철학 교육의 일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사람은 학부 때 비판적 사고를 중심으로 하는 철학이 아니라 다른 학과를 전공하면서 철학과의 논리학과 비판적 사고 과목 등 몇 과목을 듣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어떤 분야에 대해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분야의 글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더 유리할 것이다. 그런데 법학적성시험에서는 특정 분야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교양과 비판적 사고 능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고자 한다.

다른 교과들이 비판적 사고에 대한 교육을 아무리 잘한다 해도 교과 내에서 비판적 사고를 학습하는 방식으로 비판적 사고를 가르칠 뿐이다. 이것은 교과 내용과 학습함과 동시에 비판적 사고력을 학습하는 방법을 말한다. 즉 교과 내용에 명시적으로 비판적 사고의 기량이 결합된 형태로 교육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

17) 김광수, 『철학과 논술』, 『철학 논총』, 제43집 제1권, 2006, p.407.

이지, 실제 대학의 철학 이외의 교과에서 비판적 사고를 명시적으로 교과 내용과 결합시켜 교육하는 사례는 극히 드문 것이 현실이다.

다른 교과들이 교과 내용과 함께 의식적으로 비판적 사고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비판적 사고 능력은 교과목 한두 개를 듣는다고 일시에 함양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비판적 사고 능력은 오랜 훈련을 통해 습득되는 것이며 습관화되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단시일 내에 논리학이나 비판적 사고 관련 과목을 수강한 사람이 아니라, 학부 4년 동안 폭넓은 교양이 몸에 배어 있으며 사려 깊고 공정한 판단력과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모저모 따질 수 있는 비판적인 태도가 습관화된 사람을 원한다. 그리고 법학적성시험은 그런 사람을 선별할 수 있도록 출제될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취지에 부응하는 인재가 되도록 스스로를 훈련하는 것이 법학전문대학원에 가는 최선의 길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광수, 『비판적 사고론』, 『철학연구』, 제58집, 2002.
- 김광수, 『철학과 논술』, 『철학 논총』, 제43집 제1권, 2006.
- 김기현, 김영정, 『비판적 사고의 역사적 고찰과 국내의 현황』, 『철학사상 별책 제 4권: 비판적 사고의 이론적 토대와 그 활용에 대한 철학적 연구』,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2004.
- 김영정, 서원주, 『비판적 사고, 논리적 사고, 창의적 사고』, 『철학사상 별책 제 4권: 비판적 사고의 이론적 토대와 그 활용에 대한 철학적 연구』,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2004.
- 박은진, 김희정, 『비판적 사고를 위한 논리』, 아카넷, 2004.
- _____, 『비판적 사고』, 아카넷, 2008.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법학적성시험 기초 연구 결과 발표 공청회 자료집』, 2007. 9.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9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예비시험 설명자료』, 2007. 12.
- Govier, Trudy, “Ways of Teaching Reasoning Directly,” *The First British Conference on Informal Logic and Critical Thinking*, 1988.
- Nosich, Gerald M., *Learning to Think Things Through: A Guide to Critical Thinking in the Curriculum*, Prentice Hall, 2001.
- Paul, Richard & Elder Linda, *Critical Thinking : Tools for Taking Charge of Your Learning and Your Life*, Prentice Hall, 2001.

ABSTRACT

The LEET, Philosophy,
and Education in Critical Thinking

Kim, Hee-Jeong

I argue that philosophy is the most appropriatediscipline for law school preparation. The LEET (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is crucial for admission to law schools along with other forms of assessment such as GPA, English proficiency, community service, etc. I argue that pre-law school students are tested in the LEET on their ability of critical thinking. As the ability to think critically is learned much more in philosophy than in any other discipline, I suggest that courses in philosophyare helpful with regard to the LEET.

In the first part of the paper, I argue that main ability testedin the LEET is that of critical thinking. In the second part, I present various ways to teach critical thinking and suggest that all courses of philosophy are for critical thinking. I also discuss which way of teaching critical thinking is used in specific philosophy courses.

Keywords: Critical Thinking, LEET, Education of Critical Thinking, Inference, Argument